

우리가 더 해야 할 일



글 김정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 고려대 화학과 명예교수,
KU-KIST 융합 대학원장

숨 가쁘게 된 과편협 의 일 년. 어느새 2012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2013년이 다가옵니다. 누구나, 언제나,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들뜨기 마련이지요. 나도 그렇고 과편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민도 많습니다. 이미 100여 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니 그만큼 과편협에 대한 회원들의 바람은 다양하고, 바람의 완급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과편협이 속히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책임편집자와 편집인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단순히 접수되는 논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편집인들이 중요시하는 편집 방향은 학문발전 방향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발표될 학술논문의 질에만 매달리기 쉽지만, 그것으로 편집인의 책무를 완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편집인들이 갖춘 학문 분야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분석능력과 인식이 편집 방향을 결정하고 그 학문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세계 유수의 학술지 편집 책임자들은 수없이 많은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미래지향적 연구자의 학술 논문을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지향적 관점의 새로운 것을 찾아 달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런 광경을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과 관련되어 종종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출판윤리 문제도 중요합니다. 편집인들이 모든 투고논문의 윤리적 문제를 판단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심사위원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각 논문을 철저하게 여러 각도에서 심사·평가하는 것이 불상사를 미리 방지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사위원의 발굴 및 위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논문 생산 분위기 아래서는 알든 모르든 간에 윤리적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의 방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학술지의 명성도 이에 크게 의존하지요.

그 밖에도 우리 편집인들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급변하고 있는 출판기술과 출판산업에 신경을 쓰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을 준비하고 키워야 합니다. 오픈 액세스 온라인(open access online) 출판과 이북(e-book) 발간의 팽창 등은 특히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과편협도 이러한 현안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회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의 선진화에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모두 2012년을 값지게 마무리하시고, 더욱 영광된 2013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진 정 일**